



2000년대의 농업

— 이 글은 2. 18 FAO 한국협회 총회에서 농촌 경제연구원 김동희 박사의 특별 강연 내용에서 발췌한 것이다 —

세계 식량 생산은 7년을 주기로 일어나고 있으며 식량의 수요는 년 3.5%의 증가를 보 이는데 반해 실제 식량증산은 2.8% 생산 증가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식량 수요는 35kg에서 16kg로 크게 격감하였 는데 이는 소득증대에 따른 축산물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20 년 간 식량 수요 증가는 4.1%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식량 증가의 원인을 보면 70%가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며 30%는 소득 증가 때문이다. 72년 3백만톤을 수입하던 곡물이 현재는 5백만톤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요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가족제도에 의한 인구 증가 억제 방법이 효과 적이다.

동남아시아 여러나라를 보면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등 유교나 기독교 문화권의 국가들이 가족 계획에 성공하고 있는데 반해 태국 비올빈 등 불교나 캐톨릭 국가들은 실패하고 있다.

비올빈 태국 등은 최근 농지개혁에 실패하였 고 사회불안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으며 농지제도의 실패 주원인이 소작 금지에 있다고 보아 최근 우리나라 헌법개정 소작금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등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으나 현실정에 맞지 않는 잘못된 제도로 생각한다.

73년 석유파동 이후 세계 무역 증가율은 년 8.5%신장에서 4~4.5% 신장으로 크게 감소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에서 보면 공업성장이 둔화되게 되므로서 자연 농업부분에 주름살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업성장 둔화로 이농이 감소함으로 노동력은 풍부해질지 모르나 농업인구의 증가로 소득에 압력이 가해지며 정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앞으로 식량 수출국은 식량도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곡물의 경우 70% 정도 축산물을 포함해서 총자급도가 80%인데 자급도를 더 높여야 되겠다. 현재 1인당 135kg의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기상조건으로 4천만석 이상 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는 매 시간마다 80명씩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이들을 먹여살릴 식량, 의복, 주택 직장을 마련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형편에서 사료효율이 나쁜 소고기 1근 보다는 사료효율이 좋은 닭고기 3근을 먹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다.

농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농촌에 정책 발전을 위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여야 될 것이다.